



# 1. 교육실습 이론

- 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
- 교육실습의 주요과정 및 절차
- 교육실습의 내용
- 교육실습의 유의사항  
〈서식1: 학습지도안〉





## 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

교육실습이란 교원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의 교직과 이수과정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고 학문적 연구를 심화하도록 하기 위한 교사양성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에서 얻은 교과의 지식이나 이론만으로는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어려우므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실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험으로는 교수방법, 학생지도, 상담지도, 학생 또는 동료교사와의 대인관계, 그밖에 학교행정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실습은 바로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실습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교육실습은 대학이 아닌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성적산출에 있어서도 지도교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실습생들이 교육실습은 대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실습은 교사 교육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규과정이며 교사자격증이 수여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사교육의 필수과목이다. 따라서 교육실습생들은 대학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실습기관에서 예비교사로서의 역할 모두를 충실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

### 2) 교육실습은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어떤 교사를 유능한 교사로 보는가의 문제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에는 교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을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가진 교사를 유능한 교사로 보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실천적 지식이란 제 삼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사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그 상황에 맞도록 교사 스스로가 창조한 전문가적인 지혜를 의미하는데, 강의나 교과서 등을 통하여 얻는 지식만으로는 형성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장의 경험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존재



해야만 가능한 활동이다. 따라서 실제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에게 나름대로의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간이다.

### 3) 교육실습은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심화시킨다.

우수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학생의 발달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하며, 행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습생들은 교사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수원리나 교수방법, 또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태도, 대인관계의 기술, 학생지도 등을 직접 경험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실습은 또한 대학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검증하여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함양시킨다.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식과 기술이 요청되지만 특히 변화하고 생동하는 학습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지도하는 데는 방법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사범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실습의 기간이 매우 짧고 학점도 2~3학점인 관계로 교육실습을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지만 교육실습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다듬어 가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심화시키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 4) 교육실습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르친다는 일에는 단 하나만의 정답이 정해져 있지도,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가르친다는 것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늘 불확실하고 많은 대안 가운데서 하나의 최선책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가르친다는 것은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교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실습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교육실습은 학습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육원리에 대한 지식, 교과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급운영에 대한 지식 등을 각각 분리하여 단편적으로 학습한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일어나는 활동이다. 교육실습은 이러한 교육의 통합적인 특성과 교육활동의 다양한 성과에 대한 이해를 하게하며, 교사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6) 교육실습은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이론을 습득한다. 교육실습은 이렇게 습득된 이론적 지식을 교육실제에 적용하여 보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다 유용한 이론, 보다 심화된 지식으로 승화시키는데 기여한다. 교육실습은 이론으로 학습한 교육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록 하는 과정이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이론상의 오류보다는 이론을 도출해 낸 상황과 이를 적용하게 되는 교육현장의 제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들에게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교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교육실습은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초단계이다.

**7) 교육실습은 자기 평가와 자기 연구 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실습은 각 실습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모든 능력과 지식, 그리고 태도를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게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에는 비단 가르치는 일과 관련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교직관, 언어, 동작까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실습생들은 교사로서의 올바른 교육관과 사명감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실습생들은 또한 대학의 강의 시간이나 책을 통하여 배운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론을 탐구하는 계기를 갖는다.



**8) 교육실습은 교사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교사들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교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직에 대한 적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습을 하면서 교사로서의 적성이나 자질이 없음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교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실습을 통하여 교직이 자신의 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교육실습을 통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교직에 대한 매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실습을 이론으로만 알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사로서의 역할을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확인 혹은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9) 교육실습은 수업 이외의 행정적, 사무적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교사들은 학급을 직접 경영해 봄으로써 올바른 학습경영의 방법을 체득하고 학급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 특별활동, 연구 활동 및 기타 교사들과의 관계있는 활동을 통하여 가르치는 일 이외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하여 실습을 하게 된다.



## 교육실습의 주요 과정 및 절차

교육실습의 과정은 참관 단계, 참가 단계, 실습 단계 및 평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단계는 시기적으로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단계들은 순차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다. 참관 단계란 교직에 관한 각종 업무를 실제로 담당해 보기에 앞서서 현직 교사의 업무수행과정을 관찰하는 단계를 말하며, 참가 단계는 현직교사와 함께 각종 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단계를 지칭한다. 실습 단계는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교육실습생이 스스로 업무를 담당해 보는 단계이며, 끝으로 평가 단계란 그 동안의 실습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단계를 지칭한다.

### 1) 참관 단계

교육실습의 첫 단계인 참관의 단계는 본격적인 교육실습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은 수업을 포함하여, 학교의 운영과 학급경영,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도, 각종 행정업무처리 및 기타 교사가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업무들을 관찰함으로써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자신이 담당할 학급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의 제반 여건이나 특성 및 시설에 대해서도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참관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참관의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고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한다.
- ② 참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③ 교사와 학생의 수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실습학교에서 계획한 일정에 따라 참관한다.

이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은 적극적인 관찰자 및 평가자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필요시 지도교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이 특히 유의하며 관찰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습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학생의 일반적인 특징과 학부모의 특징
  - 학생들의 교우관계의 특징
  - 학생문화의 일반적 특징
  - 학교의 지리적 특징(학교환경 등) 등
- ② 교사가 수행하는 임무의 종류는 무엇인가?
  - 수업활동
  - 교과교사 모임 및 담임교사 모임 활동
  - 학급 경영자로서의 활동
  - 학생지도 활동
  - 특별활동지도 활동
  - 행정업무처리 활동 등
- ③ 교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본받을 점과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 수업운영에서의 본받을 점과 개선과제
  -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본받을 점과 개선과제 등

## 2) 참가 단계

참가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은 교사의 보조자로서 교육활동에 간접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은 교사를 도와가며 수업활동을 포함한 학생 생활지도 활동 및 학습경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 단계에서도 참관활동은 계속 이루어지며, 부분적으로는 실습경험도 갖게 된다.

## 3) 실습 단계

실습 단계에서는 교육실습생이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교사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 이 단계는 실습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그 동안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과 참관·참가



단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교사의 실무를 체험해 보는 단계이다.

실습 단계는 대체로 실습기간의 1/3 경과 이후부터 시작된다. 실습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대체로 학습 실습, 학급경영 실습, 학생지도 실습, 특별활동지도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실습 단계에서는 수업지도 실습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모든 학습지도시에는 반드시 학습지도안을 작성해야 하며, 수업실습 이후에는 지도교사의 참여 하에 평가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평가 단계

평가 단계란, 교육실습생의 실습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서, 교육실습에 대한 평가는 실습기간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시평가와 실습기간 종료 시에 이루어지는 최종평가 및 실습 종료 후 대학에 돌아와서 실시되는 학과별 평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수업실습 후의 평가

교육실습생이 수업실습을 마친 후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관계 교사, 교육실습생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업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는다.

##### (2) 종합 평가

실습이 끝날 무렵 실습학교 주최로 실습학교의 관계 교직원, 실습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습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듣는다.

##### (3) 학과별 평가

교육실습을 마친 후, 대학에 돌아와서 학과별 좌담회 등의 교육실습 평가회를 갖는다. 평가는 일차적으로 지도교사와 지도교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외에도 학생이나 동료 교육실습생에 의한 평가 및 자기 자신에 의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 교육실습의 내용



실습기간 중 이수해야 할 실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습지도 실습
- 학급경영 실습
- 학생지도 실습
- 특별활동지도 실습
- 수업 참관

위의 실습내용 및 실습시간은 교육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학습지도 실습

학습지도는 교육실습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육실습의 핵심부分之一라고 할 수 있다. 학습지도는 수업계획, 수업 전개 및 학생평가 등 교실수업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지만, 자율학습지도나 가정학습지도 등도 학습지도의 영역에 속한다.

학습지도와 관련된 주요 실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수업계획 및 학습지도안의 작성

학습지도 실습을 위한 첫째 단계는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일이다.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단위별 수업목표의 확인
  - 단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분석
- ② 교재연구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연구
  - 기타 참고자료의 연구
- ③ 학생의 선행학습수준 파악
  - 학생의 일반적 학습수준 파악
  - 우수아 및 학습부진아 현황 파악



④ 실습학교의 일반적인 여건 파악

– 시설 및 교구 확보 상태 등

⑤ 기타 실습학교의 교육방침 확인 및 반영

⑥ 수업계획의 수립

– 시간 사용 계획, 동기유발 계획, 수업전개 계획, 판서 계획, 시청각 매체 활용 계획, 과제 제시 계획, 평가 계획 등

수업의 계획은 학습지도안의 작성을 통해 구체화된다. 학습지도안은 반드시 통일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과목의 종류나 단원의 성격, 그리고 각 실습학교가 처해 있는 여건과 학습자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다만 학습지도안은 보다 짜임새 있는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습지도안은 다음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학습지도안 양식 및 선행들이 작성한 몇몇 교과와 학습지도안은 교직과, 학사지원과에 배치하였으니 참고로 활용하기 바람).

① 단원명 및 단원의 학습목표

② 학급의 특성 및 실태

③ 단원지도 기본방침 및 지도 중점사항

④ 차시별 학습내용, 학습의 진행과정, 교사 및 학생의 학습활동 내용과 방법, 교재 및 교구, 학습지도시 유의사항 등

⑤ 과제의 내용

⑥ 학습목표 달성도의 확인을 위한 평가방법

작성된 학습지도안에 대해서는 지도교사의 검토와 조언을 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동료 교육실습생들로부터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 스스로 학습지도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는 일도 중요하다. 학습지도안의 검토 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가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 설정된 학습목표는 각 교과와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② 주요 학습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단원의 중점 지도내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학생들의 선행 학습내용 및 다음 단원과 연계가 고려되어 있는가?
  -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의 과정별 시간배당은 적절한가?
- ③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구안되어 있는가?
  - 다양한 수업방법과 학생의 활동이 모색되고 있는가?
  - 교재 및 수업매체는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 질문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판서계획은 적절한가?
  - 학습자의 능력, 개인차, 흥미의 정도가 잘 고려되어 있는가?
  - 적절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가?
- ④ 실제 수업에서 여건에 따라 학습과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융통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는가?
- ⑤ 학습목표의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학생평가와 함께,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평가계획도 포함되어 있는가?

## (2) 교수학습자료의 준비 및 제작

학습지도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작성된 지도안에 따라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교수학습자료는 실습학교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실습생이 이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

교수학습자료의 준비 및 제작은 효과적인 수업의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실습생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영상매체, 신문자료, 각종 예화자료 등



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 교육실습생이나 지도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 (3) 수업의 전개

수업의 전개란 작성된 학습지도안에 따라 실제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수업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학습지도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수업에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과목의 성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수업 전개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제 수업이 학습지도안의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 수업내용 및 방법과 계획의 일치성
  - 교수학습자료 활용과 계획의 일치성
- ② 수업내용은 적절하였는가?
  - 교과(단원)별 주요학습 내용영역의 포괄 여부
  - 학습내용 영역별 시간배달의 적절성
  - 학습내용 조직의 계열성의 적절성
  - 학습내용 영역별 학습내용의 깊이 및 난이도 수준의 적절성
  - 학생의 능력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학습량 및 속도의 적절성
- ③ 적절한 교수학습자료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가?
  -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자료 활용 여부
  - 사용된 교수학습자료의 효율성 여부
- ④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는가?
  - 고등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의 정도(토론식 수업 등)
  - 학습기술 함양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컴퓨터 등 매체 및 기자재 활용의 다양성



- 실험실습의 활용 정도
- 학생의 수업참여의 활발성 정도
- 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사용되었는가?
  -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의 일치 정도
  -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천 정도(학습량의 조절, 학습속도의 조정 등)
  - 우수아 및 부진아에 대한 특별지도 여부

#### (4) 학생평가

수업의 실시 이후에는 학생의 학습 성취도에 대한 평가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로 실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활동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정기적인 평가활동보다는 단위수업에 대한 평가에 국한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단위수업활동에 대한 학생의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도구는 적절한가?
  - 평가도구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 다양한 종류의 평가방법 및 문항이 사용되었는가?
  - '수행평가'에 적절한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는가?
- ② 준거지향 평가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③ 평가의 결과는 수업의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 문항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수업의 개선에 반영되었는가?
  - 학습 부진아의 제반 특성(심리적 특성, 급우관계, 물리적 환경, 학습태도 등)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이를 부진아 지도에 반영하였는가?

#### 2) 학급경영 실습

교사의 학급경영은 학급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이해하는 일,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일, 학급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일, 학급의 바람직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지도하는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일, 학부모와 만나는 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일, 학생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일 등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학급경영은 그 영역이 넓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짧은 실습기간동안 모든 영역을 체험하거나 계획적인 학급경영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육실습생은 지도교사나 연구부장 등의 지도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습을 할 수밖에 없다.

학급경영과 관련된 주요 실습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조회 및 종례 지도
- 환경정리 및 청소 지도
- 주변 지도
- 학급 사무 처리
- 학생과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평가 자료의 정리

### 3) 생활지도 실습

한정된 실습기간 중에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담당학급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지도, 상담활동 등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교육실습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생활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학생을 이해하는 일이다. 교육실습생은 학생 개인 생활카드나 생활기록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개개인의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가운데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생활지도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학교생활 지도
- 진로지도
- 건강생활 지도
- 교외활동 지도
- 학습부진아, 부적응 학생 지도



－ 학생 서클의 지도 등

교육실습생의 학생 생활지도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제한된 학생을 중심으로 생활지도의 실제적인 실습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정한 학생만을 편애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지도와 관련된 학생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지켜줄 필요가 있다.

#### 4) 특별활동 지도 실습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특별활동의 영역은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 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활동은 특히 교과교육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독자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활동 지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요 실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클럽활동 지도

- － 클럽활동 계획의 작성
- － 클럽활동의 지도
- － 클럽활동에 대한 평가
  - 학생의 만족도
  - 학생의 성취수준 향상정도 등

② 학급활동 지도

③ 학교활동 지도

④ 단체 활동지도

⑤ 방과 후 교육활동 지도



## 교육실습의 유의사항

1. 교생은 실습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방침을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습학교의 제 규정에 따라 출퇴근 및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복장·언행·태도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며 최대한 단정하게 한다.
4. 교생은 결근·지각·조퇴를 절대 삼가야 하며, 규정시간에 앞서(실습시간 30분전)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과 동시에 교생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조퇴를 할 경우, 사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실습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근무시간 중에는 외출을 삼가야 하며, 점심식사는 학교 구내에서 해결(도시락 지참 등)하도록 한다.
7. 교외에서 학생과 사사로이 만나거나 가정방문을 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8. 실습 학교 측과 교섭할 사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생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한다.
9. 교생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10. 교육실습생으로 인하여 실습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1. 교육실습일지는 지도교사의 지시를 받아 매일 기록하며, 퇴근 시에 지도교사에게 제출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되돌려 받도록 한다.
12. 교생은 실습학교의 지시에 따라 수업참관 및 실제수업을 하여야 하며, 여타 시간은 교생실에서 교재연구, 교편 물 작성 등 교육실습에 필요한 제반연구를 하도록 한다.
13. 수업시간 중에 교실출입을 삼가, 특히 타 교과의 수업을 참관코자 할 때에는 수업 시작 전에 해당교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14. 실제수업을 배당 받은 뒤 즉시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그에 준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수업 실시 중에 해당교과 교사의 지도하에 평가·반성의 모임을 갖도록 한다.





16. 교육실습생 전원은 공개수업 또는 수업연구를 참관하여야 하며, 평가회에 참석하여 상호 의견을 적극 교환하여야 한다.
17. 학급담임교생은 담임교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학교사무처리의 경험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8. 담당학습의 자습지도 및 환경미화와 청소정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 환경의 개선과 학습실태의 파악,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19. 특정 학생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학생의 학급담임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한다.
20. 사례연구와 사회성 조사는 학급담임교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임의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
21.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22. 해당 담임 혹은 담당교사의 수업방식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 실습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밝고 공손하게 인사한다.
24. 실습생끼리의 호칭시 반말사용을 금하며 '△△선생님'을 붙여서 부르도록 한다.
25. 도장, 실내화, 도시락, 실습일지, 실습기록부를 항상 지참하여, 효율적인 교육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6. 교육실습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한 내용을 요약하여 실습일지에 기재한다.
27. 교육실습생은 교육실습을 마친 뒤, 교육실습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교육실습일지의 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밖에도 학습지도안·사례연구 등 교육실습의 성과물을 잘 보관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서식 1: 학습지도안〉

## 학 습 지 도 안

일 시:  
대 상:  
지도교사:  
실습교생:

1. 단원명
2. 단원설정이유
3. 단원목표
4. 학급의 실태
5. 지도방침
6. 학습지도안

차 시	소단원	학습내용	수업방법	교재 및 교구	유의사항
1차시					
2차시					
3차시					

7. 평가방법



## 8. 본시학습지도

### 본시의 주안점

단 계	학습내용 및 학습활동		교재 및 교수	학생의 준비물	시 간
	교사	학생			
도 입					
전 개					
정 리					
과 제					
평 가					





## 2. 학생지도지침

이 지침서에서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맞닥뜨리는 두 가지 문제, 즉 수업 진행과 생활 지도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종합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수업 중 교실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해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다루었습니다. 2부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과 예방 교육, 사안 처리 방법과 피해자·가해자 및 학부모 등과의 상담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학교 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개입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실 안의 상황은 매우 역동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사례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폭력도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통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어서, 이런 행동은 바로 이런 심리 상태에서 나온다고 자신있게 예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숙지하되, 수업 방해와 학교 폭력의 사례에 대한 개입은 '반드시 이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지침서가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긍정적인 개입을 이끌어 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실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실존하는 어떤 학생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 목 차

###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 것인가?

- 1.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도 방법 08
- 2. 상황별 대응 전략 12

### 제2부 분노에 찬 학생들, 어찌할 것인가?

- 1. 담임선생님이 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 활동 48
-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52
- 3.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56
- 4.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상담 70
- 5. 학교폭력 유형별 개입 82

### 참고자료

- 1.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이해 100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한면서  
다시 알지

\_ 이해인 "나를 키우는 말"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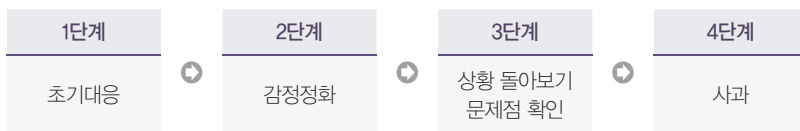


# 이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도 방법

선생님과 학생이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그리며 선생님들은 힘차게 교단에 선다. 그런데 교실에서는 매일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면 교사들이 유능한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아이들에 대하여 선생님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수업 중 문제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초기대응

-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를 더 키우게 된다. 그 상황에서 아이와 길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지도하고 그 상황을 종료한다.
- 다른 학생들 앞에서 훈육할 경우, 모욕감 때문에 더욱 반항하거나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따로 불러서 일대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상황을 종료할 수 없이 감정이 격해진 경우에는, 동료교사나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교감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아 성찰교실이나 상담실에 가 있도록 한다.

#### ■ 참고문헌

하임기너트 「교사와 학생사이」 제임스 레빈, 존 산켄카에 「자율통제교실/ADHD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방행 행동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





## 2단계 : 감정정화

-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감정 정화에 초점을 둔다. 화 나는 마음, 억울한 심정, 답답함, 학교를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 친구들 앞이었다는 데 대한 수치심, 부모님께 알려질 것에 대한 걱정 등 여러 감정을 공감하고 정화시킨다.

## 3단계 : 상황 돌아보기, 문제점 확인

- 상황을 돌아보고 설명하도록 하며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한다. 선생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이었는지, 친구의 어떤 말이나 태도 때문이었는지, 가족이나 이성친구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등등을 확인한다.
- 선생님 혹은 친구의 말이나 태도가 정말로 화나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왜곡한 부분은 수정하여 이해시키고 인정하게 한다.
-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 입장에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상상해 보게 한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친구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된다.)

## 4단계 : 사과

- 갈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대화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 사과의 과정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과 통화 또는 면담을 실시한다.
- ※ 사과의 과정까지 이루어진 뒤에, 학생이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나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인관계 기술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청소년회관이나 복지관 등의 집단상담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 수업 중 폭력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부모님을 면담하여 전문기관에서 심리검사 및 심리 상담을 실시하게 한다.

## ◆ 감정코치 과정의 다섯단계



- 1단계 :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기
- 2단계 : 자녀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친밀감 조성의 좋은 기회로 삼기
- 3단계 : 자녀 감정의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경청하기
- 4단계 : 자녀가 자기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 5단계 :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기

출처 \_ 존가트맨식 감정코치법, 존가트맨 지음, 인간사랑, 2007

# 02

## 상황별 대응 전략



- 1 습관적으로 욕을 해요
- 2 격하게 대들거나 반항을 해요
- 3 아이들을 선동해서 수업분위기를 흐려요
- 4 수업 중에도 폭력을 휘둘러요
- 5 아무리 깨워도 잠만 자요
- 6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 7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 8 꼼지락꼼지락 손이 바빠요
- 9 언제나 교과서가 없어요
- 10 수업에 늘 늦게 들어와요
- 11 자꾸 교실 밖으로 나가겠대요
- 12 그냥 수업에 들어오기 싫대요
- 13 과제를 해오지 않아요
- 14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놀려요
- 15 눈이 온다고 창가로 달려가요
- 16 엉뚱한 질문을 해요
- 17 뻔한 거짓말을 해요



## 습관적으로 욱을 해요.

용훈이의 말은 욱으로 시작해서 욱으로 끝납니다. 친구들도 항상 욱을 섞어서 말을 하다 보니 언제나 큰소리로 격앙되어 흥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업 중에 교사가 질문을 하거나 태도를 지적하면 “아이~ XX” 하며 욱을 뱉어냅니다. 용훈이가 가장 심하게 욱을 하는 때는 친구들과 싸울 때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듯, 큰 소리로 갖가지 욱을 거칠게 쏟아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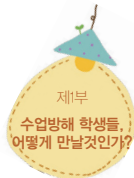
### 사례 이해

- ▶ 욱 사용이 습관화 되어 있어 바른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 ▶ 〈또래 문화〉의 하나로 생각하여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또래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욱을 사용할 수 있다.
- ▶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욱을 용인하기 어렵겠지만, 욱을 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이끌면 학생은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더 거친 표현으로 욱을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관계가 처한 상황적 요인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례 개입

- 욱을 자주 사용하는 가정환경, 각종 유해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보호자를 상담한다.
-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비속어 사전에서 자신이 쓰는 욱이 어떤 뜻인지 확인하기, 욱의 대체 단어 찾기, 욱의 이미지맵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욱과 같은 과격하고 저속한 표현보다는 자신의 감정, 느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나·전달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 ✖ 이려면 안돼요.

**너는 욕 맞고는 할 말이 없니? 너는 입만 열면 욕이냐?**

욕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비난하는 말은 학생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어렵고, 오히려 반발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욕하지 마라. 이 XXX 야!**

욕 하는 학생을 욕으로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바른 말로 지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 이렇게 해 보세요.



**용훈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는 거구네!**

학생이 욕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태인지 감정을 읽고 받아들이 주세요. 자신의 감정이 수용됨을 느끼면 학생은 곧 흥분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네가 말한 XXX는 ○○○이라는 뜻이지?**

감정을 수용한 후, 교사는 학생이 사용한 욕을 바른 말로 교정하면서 욕을 한 상황과 그 때의 감정을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듣는 친구도 상처를 받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선생님도 많이 놀랐어.**  
학생의 감정은 수용하되,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한 태도로 지도해야 합니다.

**화난 감정을 욕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람직한 의사 표현의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선생님이 역할모델이 되어서 시범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표현 방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Yes!



## 격하게 대들거나 반항을 해요.

윤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모범적인 태도로 수업에 집중하는 날도 있지만 속상한 일이 있는 날에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대답을 않거나, “예? 왜요?”, “뭐라고요?”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등, 선생님에게 직·간접적인 위협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의 감정이 정리되면 선생님에게 찾아와 “아까는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 사례 이해

- ▶ 감정 표현과 의사 전달이 미숙하여 선생님의 지도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못하고 폭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 ▶ 가정에서부터 부적절한 감정 표현이 습관화 되었을 수 있다. 부모 관계, 양육 태도 등 전반적인 가정 상황이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해야 한다.



### 사례 개입

- 선생님은 학생들이 내뱉는 말이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 감정 표현과 의사 전달이 미숙한 학생은 감정목록(또는 얼굴표정 그림)을 주고 자신의 현재 기분을 확인하게 하고, 그 이유와 수업과는 별개임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집단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 부모·학생간의 애착 형성 및 의사소통유형 등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학생이 보인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 ✖ 이르면 안돼요.

### 너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학생의 행동에 선생님이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학생의 감정도 더욱 격해지고, 이는 감정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 너, 안되겠다. 교실 뒤에 나가서 있어!

학생의 감정을 무시한 채 상황을 종결하려하면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은 2차적인 반항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평소에도 부정적 감정이 표출되려고 할 때 'stop' 하는 훈련을 하여,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행동을 멈추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많이 화가 났구나! 지금 네 감정이 어떤지 이 중(감정목록이나 얼굴표정 그림)에서 찾아볼까?

학생의 격한 감정을 교사가 일단 수용해 주세요. 학생은 부적절한 방법으로나마 자신을 표현하려 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감정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잠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시간을 주세요.

### 수업 시간에 윤호가 그렇게 행동하니 선생님도 상당히 당황스럽구나!

교사 또한 학생의 행동, 상황에 대해 화난 감정을 신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화가 났다고 해도 이걸 교실 안에서 선생님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야!

단호한 태도로 학생의 태도, 상황에 대해 꾸짖으세요. 단, 학생의 인격이나 성격에 대해서, 혹은 과거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 이렇게 화가 날 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선택 가능한 1~2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학생이 하도록 합니다. 이후 선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Yes!



## 아이들을 선동해서 수업 분위기를 흐려요.

호철이는 영어시간에 친구들과 장난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엉뚱한 표정을 짓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주변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것 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는 지우개를 던지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가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는 선생님에게 “예, 예, 알겠습니다~.”하고 대답할 뿐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사례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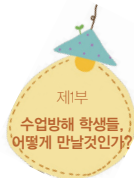
- ▶ 기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흥미가 낮아 학습의욕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 ▶ 특정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반감이거나 수업 장악력이 취약한 선생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습관화 되어 있는 경우, 또래에게 돋보이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다.



### 사례 개입

- 학습 능력 및 학업 의욕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개별 학습을 통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후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ADHD 등 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한 후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의 이면을 파악해야 한다.
- 선생님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의미 없는 웃음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실천한다.





## ✕ 이거면안돼요.

너 때문에 이게 뭐니?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다.

학생이 의도했던 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NO!

## ○ 이렇게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사전에 고지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교실 내 타임아웃, 성찰교실 의뢰 등 단계적인 지도를 실시합니다.

수업 시간인데 네가 다른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짜증스러운 수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단다.

나·메시지를 통해 학생의 행동으로 선생님이 받는 구체적인 영향을 전해봅니다.

이번 수업에는 이것을 한번해 보렴.

학생의 학습 능력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보세요.

정말 잘했구나! 해보니 어떠니?

가능한 수준의 과제를 주고 이를 완수 했을 때 칭찬한 후, 학생이 느낌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학생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학급에서 공유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면 학습 의욕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Yes!



## 수업 중에도 폭력을 휘둘러요.

현수는 수업 시간에 같은 반 학생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난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던 일의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장난도 많이칩니다. 옆자리 학생을 툭툭 건드리다가 점점 강도가 세어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 사례 이해

- ❶ 화를 참지 못하는 등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 ❷ 수업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 간의 감정이 수업 중에 폭력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
- ❸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집단, 몸 장난 등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다가 이것이 폭력 행동으로 확대 될 수 있다.



### 사례 개입

- 수업 중에 학생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상황을 종결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그 장소에서 분리시켜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격행동을 유발시킨 원인(상황)을 듣고 학생의 왜곡된 해석이 있으면 이를 수정하도록 돕고 상대 학생 및 선생님에게 사과할 기회를 마련한다.
-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집단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 표현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 ✕ 이거면 안돼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특하면 주먹질이야.**

행동을 비난하지 마세요. 격한 감정의 학생을 지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해봐, 왜 이러는데?**

감정 수용 없이 학생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면 학생은 반발합니다.

NO!

## ○ 이렇게해 보세요.



**수업 중인데도 친구를 때릴 만금 화가나 있었구나.**

가장 먼저 피해학생과 분리시키고, 학생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일단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화난 감정을 수용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자신의 화난 감정이 수용됨을 느끼면 학생은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너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이니?**

학생이 진정된 후에는 스스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보도록 하세요. 이중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세요.

**친구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자신의 감정이 수용되었다면 상대의 감정도 수용해야 함을 이해시켜 보세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친구를 때리는 것, 특히 수업 중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

학생의 감정은 수용하되,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주세요.

Yes!



## 아무리 깨워도 잠만 자요.

희철이는 수업이 시작되어도 자고 있습니다.

“희철아! 바로 앉아! 책 꺼내고!” 전혀 미동도 없이 계속 엎드려 자고 있고 옆에 짝이 툭툭 쳐서 깨워줍니다. “아이 ×! 뭐야!” 귀찮아하며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시늉을 합니다.

“도대체 몇 시에 자기에 수업시간에 잠만 자니? 가방도 안가지도 다니고 책이랑 연필 아무것도 없고, 왜 그래?” 그제야 잔뜩 찌푸린 얼굴로 사물함에 가서 표지는 찢어져 너덜거리는 교과서를 가져와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듯 놓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책상에 엎드려 잡니다. 수업시간마다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멀쩡하게 일어나 돌아다닙니다.



### 사례 이해

-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잠만 자는 원인이 지능 문제인지 심리·성격적인 문제인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사례 개입

-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판타지 소설 읽기, 만화책 보기, 아르바이트 등 수면시간이 부족한 학생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한다.
-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여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앓는 질병이나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도 알아본다.
-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것이라면 자신이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목표를 갖게 하여 이를 준비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준다.



## ✖ 이라면 안돼요.

**잠을 자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거나 심하게 나무라지 마세요.**

그냥 두면 다른 아이들까지 졸게 되고 큰소리로 나무라면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수업분위기가 경직돼요.

**엎드려 일어나지 않는 학생을 억지로 일으키는 강등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욕박지르면 관계만 나빠지고 화가 난 선생님은 수업진행이 어려워지며 학생은 반항심으로 공부를 더 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바른 말로 지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밤에 뭐하고 수업시간에 잠만 자냐?**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해요.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교실 뒤에 있는 키높이 책상으로 보내 서서 잠을 깨도록 도와주세요.**

키높이 책상을 교실마다 비치하도록 학교에 요구하세요.

**담당 교과목의 학습부장 역할을 부여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수업전 준비과정에 참여시키세요.**

빔프로젝트 켜고 수업내용 ppt찾기, 선생님의 수업자료 가져다 놓기, 수업과제물 수합, 프린트 나누어주기 등을 하다보면 뇌가 깨어 있어 졸지 않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수업태도가 호전되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상점부여도 활용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의 특이한 소리를 이용하여 분위기 전환을 해보세요.**

세일러문의 요술봉 뽀롱 뽀롱 소리가 귓전에 들리면 머쓱해서 일어나겠쥬.

**자는 학생 옆에서 수업하기, 어깨에 손 얹어 깨워보기 등도 해보세요.**

Yes!



##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창이는 등교 시간만 되면 배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학교를 거의 나오지 않은 채 하루 온종일 무기력하게 방안에서 누워있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오전에는 두발로 닫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어 흐물흐물 주저앉아버립니다. “주창아! 학교 갈 준비해야지?” “배가 아파서 못 일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니? 엄마도 이젠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는 수업일수 모자라면 진급이 어렵다고 등교독촉 통지서가 왔어!” 어쩌다 학교에 오는 날도 거의 11시나 12시경에 와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1~2시간 앉아만 있다가 집에 가는 등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사례 이해

- ▶ 학부모와 학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리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을 하도록 연결해준다.
- ▶ 등교거부와 학습무기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여 가정환경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에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출장을 올리고 교사 2인이나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과 같이 가는 것이 좋다.



### 사례 개입

-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 이거면 안돼요.

오늘도 또 지각이냐? 학교에 오면 뭘 해? 손가락 하나 꿈쩍도 안하고 대체 어찌자고 이러니?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선생님에 대한 적개심만 더 커져요.

도대체 너희 엄마는 뭐하시니? 아침에 애 하나 깨워서 챙겨 학교도 못 보내고.

아이들은 자기 엄마를 무시하는 선생님의 말에 극도의 반항심이 생겨요.

## ○ 이렇게해 보세요.

처음에는 학교를 늦게라도 무단결석 하지 않고 꾸준히 나오도록 학교실정에 맞는 방법을 연구한다.

Wee클래스의 상담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줘 학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도록 해 주세요.

학생의 수업참여 행동을 단기간에 높이려 하기 보다는 우선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이해한다.

그 나름대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과정을 벗어나기 위한 어려움 등을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때, 긍정적인 동기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친한 교우관계를 조사하여 친구들이 전화나 문자보내기, 방과 후 집에 찾아가 과제물 알려주거나 노트필기 빌려주기, 가정통신문 전달하기, 학교 행사나 친구들 에피소드 알려주기 등으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교실 탈력에 등교일은 동그라미나 해바라기로 표시해 놓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거나, 작은 것이라도 적절한 보상을 하여 등교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 잠시도 가만히 못있어요.

“용진아! 제자리 가서 앉아! 수업시간에 왜 돌아다니니?” “제철아! 친구한테 뭘 던졌어? 선생님 설명 안 들을래?” “기한이는 자꾸 뒤로 돌아보지 매 옆 사람과 얘기 하지 매 또, 또! 하지말래도, 수업을 못 하겠잖아! 시험범위 나가기도 바쁜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 하는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주의 산만한 학생들 지도이다. 수업진도를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수업과 관계없이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학생,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선생님의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등 종류도 많다.



### 사례 이해

- ① 주의 산만한 학생의 행동은 그 원인을 찾아 시정해 주어야 한다. 선생님은 학생 당사자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부드럽게 타이르거나 주의를 준다.
- ② 여러 번 주의에도 불구하고 산만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쉬는 시간이나 별도의 시간에 학생과 면담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행동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쉽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도해보도록 한다. 가정에 알려 학부모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 사례 개입

- 학생의 주의산만한 행동 상황의 상세한 기록,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내용, 전문가의 치료 내용 등을 날짜별로 기록해 지도에 참고한다.





## ✕ 이거면 안돼요.

수업시간 내내 서서 수업을 받도록 하거나 교실 밖으로 보내는 방법, 인격 모독 발언, 공포심 조장, 수업시간 중 계속되는 흥계 등은 하지마세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없이 아이나 학부모에게 선불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가급적 전문가가 진단명을 알리도록 언어 선택에 신중하셔야 돼요.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신과 진료 등과 관련된 말에 아이나 학부모는 신경이 예민하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 ○ 이렇게해 보세요.



수업시간에 과잉행동하는 양상을 교과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기록해 주시도록 부탁하세요.

선생님의 관찰평가 후 전문가에 의뢰 시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학부모님과 면담 시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과잉행동에 대한 허용 횟수를 정해주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세요.

ADHD의 치료적 접근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공격성이 있는 경우는 찰흙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공격성이 표출되고 긴장이 이완돼요. ADHD학생에게는 아주 엄격하지 않으면서 호트러지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고 일관성 있게 준비활동, 토론, 등 체계적으로 다가가야 해요..

주의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한 번에 한 가지씩 끝낼 수 있는 단순한 과제를 제시해 주세요.



## 8 꼼지락꼼지락 손이 바빠요.

“수인아! 지우개를 잘게 썰어서 뭐하려고 하니?” “민철아! 샤프펜슬로 로봇을 만들려고 하니? 친구들 샤프에서 클립을 빼다가 죄다 끼워놓았구나!” “미수야! 서랍 안에 뭐가 있어? 계속 손으로 꼼지락거리네? 핸드폰이니? 가지고 나와라! 핸드폰은 1주일 선생님이 보관한다.” “선생님! 시간 됐는데요.” “뭐야? 문자 왔잖아? 보낸 애가 누구야?” “다른 학교 애인데요.”



### 사례 이해

- ②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손장난을 하는 원인이 성격상 책임감 결여 때문인지, 기질적인 지속성의 부족 때문인지, 부모의 양육방법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개인 상담을 통해 탐색한다.



### 사례 개입

- 가정에서도 동일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므로 생활습관, 학습환경,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문상담가와 연결하여 문장완성검사, HTP(집, 나무, 사람) 검사, 그림검사 등을 하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아이의 말문을 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손장난을 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며 손을 사용하는 역할놀이 즉, 고무찰흙놀이나 종이접기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심하게 주의 산만한 행동은 일종의 병(ADHD)이며, 학생의 현재 생활 및 미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변 학생의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 이거면 안돼요.

넌 왜 이리 가만있지를 못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손을 묶어 놓아야겠대!

아이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더욱 산만해져요.

“저 아이는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포기해 버리는 선생님의 인식은 안돼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세요.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따뜻한 시선으로 선생님의 진정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아이를 변화시켜 보세요.

## ○ 이렇게 해 보세요.



머리를 예쁘게 잘랐네? 방학동안 몰라보게 컸구나!

틈나는 대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가 필요해요.

손장난이 심해지는 때가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관찰이 필요해요.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욕구불만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손장난이 심하다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면담을 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명상이나 요가, 서예, 바둑, 독서, 퀴트, 한지공예 등 새로운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해보세요.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돈시키고 책상위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도록 지도하세요.

차분하고 안정된 성격을 가진 아이로 짝을 정하여 주도록 해보세요.



## 언제나 교과서가 없어요.

민수는 언제나 교과서를 가져 오지 않습니다. 공책이나 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번이 집에 두고 왔다느니, 친구가 빌려가서 안 가져 왔다느니, 아니면 책상 위에 두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려서 아예 없다느니,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교과서와 공책이 없으니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필기나 문제 풀이 등도 하지 않습니다. 수업 중 활동을 하라고 하면, “책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하고 버팁니다. 친구랑 책을 같이 보라고 하면, 그 책에 낙서를 하거나, 그 친구에게 빨리 풀라고 다그치면서 그 친구 공부까지 방해를 합니다.



### 사례 이해

- ▶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 ▶ 자신의 물건을 챙기거나, 학습 또는 생활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학생일 수 있다. 가정에서 학생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사례 개입

- 학습 동기 결여의 원인을 찾아보고, 작지만 꾸준한 보상을 통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동기를 갖도록 지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교과서 등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본다. 교과서와 공책을 친구나 선생님이 보관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차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 ✕ 이거면 안돼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학생이 교과서도 없이 학교에 올 수가 있니? 너 학생 맞아?

비난 대신 행동을 바로 잡아 주세요.

또 없냐? 네가 만날 그렇지 뭐.

포기하면 안 돼요.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오늘 교과서를 안 가져왔네. 교과서 준비하는 것을 자주 잊게 되는 모양이구나. 수업 준비가 되지 않으면 민수가 수업 활동을 함께 제대로 할 수 없고, 친구들도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많이 안타까워.

수업 준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구체적인 영향을 짚어주면서 선생님의 마음도 같이 전해보세요.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교과서를 챙길 수 있을까?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고, 작은 약속부터 지켜 나가도록 훈련하세요.

각자의 교과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교과서를 활용한 퀴즈나 이 벤트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각자 교과서를 펼쳐서 그 페이지의 글자나 인물 수 등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고, 사탕이나 5분 휴식권, 발표제외권 등의 쿠폰을 선물해 보세요.

Yes!

## 10

## 수업에 늦게 들어와요.

지혜는 늘 수업에 늦습니다. 벌써 담당 선생님이 입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벌칙 문을 열고 들어와 천천히 사물함에 가서 책과 공책을 꺼냅니다. 거울도 보고, 빗질도 한 후에야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선생님이 나무라면, 당당하게 “화장실 갔다 오느라 늦었던 말이에요.” 하고 대답합니다.



### 사례 이해

- ❶ 기본적인 생활 예절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 공동체 의식이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 ❷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경우로, 조금이라도 수업을 덜 받으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 사례 개입

- 게으름이나 책임감 또는 학습 동기 부족이 원인이라면, 생활 태도 개선이나 바른 습관들이기,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교사가 기분 나쁠 행동이나 선생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과장된 행동을 한다.
- 선생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표현이라면,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단호하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주되, 학생들 앞에서의 지적은 피하는 것이 좋다.



## ✕ 이거면 안돼요.

빨리 빨리 들어가서 앉아. 늦게 들어온 주제에 뭐 잘 했다고 그렇게 늦장을 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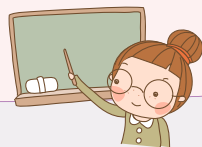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학생도 더 강한 반감을 표현하게 되지요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야 들어와?

길게 대답할 여지를 주지 마세요. 간단히 자리에 앉히고,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세요.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조용히 제 자리에 앉도록 해라. 이제 다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계속할까?

화난 표정으로 얼마나 늦장을 부리는지 지켜보지 마시고, 학생이 자리에 앉아 수업에 참여할 때까지 잠시 수업을 멈추고 기다려 주세요.

늦게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

짧게,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고치라고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수업 끝나는 시간을 지키려면, 시작하는 시간을 지켜야겠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정시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Yes!

## 11

## 자꾸 교실밖으로 나가겠대요.

주영이가 수업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1분 간격으로 손을 들고 급하다며 온 몸을 비튼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얼른 다녀오라고 보냈더니, 요란을 떨고 다녀옵니다. 주영이가 이번에는 물을 먹고 오겠다고 합니다. 집요하게 때를 써서 할 수 없이 보내면, 다른 아이들까지 덩달아 '화장실 가겠다, 물을 마시고 오겠다.' 야 단입니다. 그 와중에 주영이가 다시 손을 듭니다. 배가 아파서 보건실에 가야겠습니다.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 때문에 수업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 사례 이해

- ①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동기와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기도 하다.
- ②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때를 쓰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사례 개입

- 학생이 이런 상황을 의도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줘야 한다. 계속해서 학생에게 끌려가다가는 전체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고 자체가 미성숙한 경우라면, 한두 번의 요구를 받아주되 이러한 방식이 옳지 않은 것임을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 ✕ 이거면 안돼요.

다녀온 지 하루도 안됐는데 또 나간다고? 한 번에 해결하고 오지 왜 자꾸 나간다고 야단이야?

학생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시끄러, 그냥 참아.

학생의 행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해 주세요. '무조건, 그냥'이라는 말로는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우니까요.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모두들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영이가 수업시간에 들락달락거리니까, 수업에 방해되고, 수업 분위기가 흐려져서 수업 진행이 쉽지 않네.

나·메시지로 주영이의 행동이 수업에 방해되어 속상하다는 선생님의 마음을 전하세요.

화장실 가는 것, 물 마시는 것은 쉬는 시간에 해야 하는 거야.

짧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규칙을 만든다.

: “우리 주영이가 필요한데, 자꾸 나간다고 하네. 우선이 과제를 다 해 놓고 다녀오는 건 어떨까?”

학생이 주의를 기울일 만한 과제를 제시해 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분까지를 다 해 내면 모두가 함께 쉬 수 있는 시간을 줄게.

학생 전체를 달래야겠죠?

Yes!

## 12

## 그냥 수업에 들어오기 싫대요.

미정이는 국어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며 과자를 먹습니다. 엎드려 있지 못하게 하고, 교과서가 없다고 꾸중할 것 같아서 그냥 수업에 들어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미정이의 무단 결과는 계속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교실에 데려다 놓아도, 어느새 나가버리고,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들어가기 싫은데 왜 자꾸 수업에 들어가라고 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 사례 이해

- ▶ ‘그냥’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수업 시간을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그 시간을 피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 ▶ 대체로 학생들은 수업태도에 엄격하고,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교사를 부담스러워 한다. 즉, 자신의 행동양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 한다.



### 사례 개입

- 해당 교과 선생님과과의 특별한 관계가 문제라면, 그 교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 들려주고,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야기하게 하여, 서로 양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협의하게 한다.
- 수업 거부 정도가 심각하면, 며칠 자율학습을 하며 마음을 다스릴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담당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에 공부할 부분을 지도받게 하는 것이 좋다.



## ✕ 이러면 안돼요.

‘그냥’ 이 많이 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수업에 들어가  
기 싫은데?

‘왜’는 질문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려요.

수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네 선택사항이야? 수업엔 무  
조건 들어가는 거야.

강요는 반발심만 키워요.

선생님한테 널 맞추어야지.

선생님들은 다 한 편인 것 같아요.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수업 듣기가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런데 선생님도 네가 내 수업에 들어가  
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단다.

우선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의 감정을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이 어  
떤지 학생에게 들려주세요. 논쟁하지 말고, 그냥 서로 마음을 나누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싫을 만한 무슨 일이 있었니?

‘왜’ 대신 ‘무슨’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수업담당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들 간  
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면 네가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은 어퍼니?  
선생님께서 어떤 태도로 널 대해 주면 좋겠니?

학생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선생님께서 너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 것 같니? 그 중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니?

기본적인 수업 태도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가도록 해 보세요.

Yes!

## 13

## 과제를 해 오지 않아요.

정희는 딴 짓을 하거나 졸지 않고 늘 수업에 열중합니다. 발표를 시키면 가장 먼저 손을 듭니다. 독후논술문을 쓸 때면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죠?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면 될까요?”하고 물으며 열의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내내 질문만 할 뿐 한 자도 쓰지 않고, 약속했던 발표도 “죄송해요, 다 못 했어요.” 하면 그만입니다. 매사에 열의를 보이는 듯하면서도, 과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사례 이해

- ▶ 본인의 의욕만큼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능력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 ▶ 한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뿐, 실제로는 과제를 해결할 만큼의 에너지나 동기가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 ▶ 선생님의 질문이나 요구에 빨리 반응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빨리 종결해 버리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다.
- ▶ 완벽하게 잘 하고 싶은 욕구가 크지만 욕구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매번 좌절하며 과제완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사례 개입

-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생의 능력에 맞는 과제로 대체하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수행 방법을 안내해 준다.
- 존재에 대한 인정은 분명하게 해 주되, 상담을 통해 에너지나 동기 결여의 원인을 파악한다.
- 과제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완성된 결과물을 내도록 돕고, 작은 성취감부터 경험하도록 적절한 과제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 ✕ 이거면 안돼요.

하지도 못 하면서 왜 자꾸 나서?

기를 죽이면 안 돼요.

넌 제대로 해 오는 게 하나도 없구나.

지나치게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그 이전 것까지 비난하지도 말고요.

하기 싫으면 차라리 한다고 하거나 말지. 미안하다면 다야? 너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비난하지 말고, 아이의 잘못으로 일어나게 된 상황을 이해시키세요.

NO!

## ○ 이렇게해 보세요.



오늘은 그동안 발표해보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해볼까?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 보자.

다른 학생에게 발표 순서를 자연스럽게 돌려주세요.

과제를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선생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자.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참 좋구나.. 다음은 어떻게 되니? 이제 다음 부분을 완성해보자.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장점을 찾아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과제는 정희의 노력이 많이 보이더구나. 성실하게 노력한 면이 보여서 정말 마음에 든다.

작은 성취라도 보이면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Yes!

## 14

#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놀려요.

교실 칠판에 선생님의 얼굴(또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리한 모습으로 정확하게 그린 우스운 모습(선생님을 비꼬는 그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 사례 이해

- ▶ 이러한 사례는 흔히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재미삼아 한 장난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기도 하다.
- ▶ 누가 그렸느냐고 추궁하거나, 짓궂은 장난에 기분이 상하여 그림 그린 일을 나무라거나, 무익한 설교나 타이르는 일을 하면 갈등 국면으로 이끌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선생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그림을 그린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심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짓궂은 장난기로 이해하면 사태 해결이 수월해진다.



## 사례 개입

- 현명한 선생님은 학생의 행동을 비꼬거나 직접적으로 혼내지 않으며, 학생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창작력에 초점을 두면서,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 ✖ 이르면 안돼요.

누구야? 그린 사람 나와!

강압적인 태도로 상황을 악화시켜요.

공부하는 칠판에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누군지 못 됐구나! 누군지 알만하다!

비꼼으로써 반감을 유발해요.

칠판을 공부하는 데 쓰는 거지, 너희들 장난감이 아니야. 한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그림을 흥미 있게 보고 나서 천천히 지우면서) “어찌나 잘 그렸는지 지우는 아까운 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로 하여금 종이에다 다시 옮겨 그리도록 하면 좋겠다.

짚궂은 장난기로 이해함으로써 상황 해결에 용이해진다.

참 누가 그렸는지 선생님의 특징을 잘 나타낸 그림이네, 10점 만점에 9점!

Yes!



## 눈이 온다고 창가로 달려가요.

수업 중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눈이대!”라고 소리쳤고 아이들은 환성을 울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일제히 교실은 소란스러워졌고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는 학생들도 있고 창턱에 재빨리 엉덩이를 올려놓는 학생도 있습니다.



### 사례 이해

- ▶ 눈이 내리는 광경은 누구한테나 경이감과 환희감을 불러일으킨다. 환호성과 함께 창문으로 달려간 행동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한 것이다. 덧붙여 수업에서의 이탈을 즐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다.



### 사례 개입

- 눈 내리는 광경에 찬탄하는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은 존중받는 만큼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학생들의 감정을 존중하되, 소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런 상황에서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학생과 함께 탐색한다.





### ✖ 이르면 안돼요.

조용히 해! 눈 내리는 거 처음 보니?  
학생들의 감정을 무시하여 모욕감을 유발한다.

자리에 앉아! 수업 시간이잖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창문으로 물려드는 아이들을 방  
관한다.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와, 눈이 오는구나. 눈이 오니, 너희들. 신나지.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한다

(잠시 아이들과 창밖을 보다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여러  
분이 조용히 제자리에 앉으면 선생님과 함께 눈 내리는 것을 5분 정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커튼 내리고 수업하는 거야. 어떻게 하고 싶니?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한다.

Yes!

## 16

## 엉뚱한 질문을 해요.

사례 1. 철도에 대해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몹시 편찮으세요.”

사례 2. 보호색에 대해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말했다. “우리 개는 강아지를 만지는 사람을 사정없이 물어요.”

사례 3. 건강에 대해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물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지요?”



### 사례 이해

- ▶ 수업 중에 학생들이 주제와 동떨어진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선생님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다. 대체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나 자신감은 없는데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경우에 이러한 질문을 한다.



### 사례 개입

- 일단 학생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고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수업의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어야 반감 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때로는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 꾸중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 이르면 안돼요.

사례 1: 아니, 할머니가 철도냐? 왜 공부 시간에 갑자기 할머니 이야기니? 너는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만 한단 말야.

모욕감을 느껴 반감을 갖게 된다.

사례 2: 강아지와 보호색이 무슨 관계가 있니? 수업 시간에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구나.

사례 3: 나도 몰라.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사례 1: 그래, 그런데 왜 할머니 생각이 났을까? 혹시 기차와 할머니가 연관된 일이 있니?

사례 2: "보호색을 배우니까 어미개의 강아지 보호가 생각났구나. 그런데 보호색이란....." 수업을 계속하며 질문에 대한 별다른 언급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사례 3: oo는 호기심이 매우 많은 것 같구나, 일단 건강 유지에 관한 공부 먼저 하고 나서 다음번에 기회를 만들어서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지, 일단 공부에 집중해볼까.

Yes!

## 17

## 변한 거짓말을 해요.

“훈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뭘, 내내 뒷사람 돌아보고 떠들던데.” “저 안 떠들었는데요.” “훈아, 쓰레기를 왜 그렇게 잔뜩 버려놔니? 얼른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렴.” “제가 안 버렸는데요.” “훈아, 수업 중에 지우개 조각을 던지면 안 되지?” “아니요, 저 안 그랬는데요. 제 지우개 여기 있는데요.” 훈이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목격한 학생들이 있고, 심지어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보았는데도, 절대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우깁니다. 몇 번 같은 지적을 하면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 사례 이해

-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본적으로 거짓말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라 할 수 있다.



### 사례 개입

-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게 되면, 더욱 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므로, ‘왜’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미 습관이 되어 버린 경우, 진위를 가리는 방식은 무의미할 수 있다. 모든 정황상 사실이 분명한 경우 “했니, 안 했니?”를 질문하여 거짓말을 유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 우기면 넘어간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고착시키는 길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한다.
- 단, 여러 친구들 앞에서 억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수 있으므로, 대치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한다.



## ✖ 이르면 안돼요.

안 하긴 뭘 안 해, 너 했잖아. 했어, 안 했어?  
다그쳐 물으면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내가 다 봤는데 왜 거짓말이야? 넌 입만 열면 항상 거짓말이야.  
'항상'이라는 말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우기면 다야? 우긴다고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똑바로  
말 못 해?

선생님과 학생의 대치국면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NO!

## ○ 이렇게 해 보세요.



훈이랑 정우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구나.  
함께 잘못된 친구가 있다면 같이 지적을 해 주세요.

교실이 지저분하네. 산뜻한 기분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떨  
어져 있는 휴지를 전부 줌도록 하자.

특정인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다 함께 정리하도록 유도하여 본인이 버린 쓰레기  
를 줌게 하세요.

Yes!



## ◆ 화는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아가다-틱낫한

화가 날 때는 무조건 화를 억눌러서도 안 되고,  
화를 준 상대방에게 금방 돌려주어서도 안 되고,  
화를 회피하면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도 안 되고,  
주먹으로 샌드백을 치면서  
영뚱한 곳으로 화를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분노를 담아주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_김형경, 「천 개의 공감」中에서

## 제2부



분노에 찬 학생들,  
어찌할 것인가



# 이



## 담임선생님이 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학급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 1.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

#### 1)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학생들에게 바르게 알린다.

- 폭력성,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헐뜯하는 행동,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 심리적인 괴롭힘이나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동도 학교폭력이다.

#### 2) 폭력은 문제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나와 생각이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를 경우, 일시적으로 문제해결이 되는 것 같아 보일 뿐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감정만 상하게 된다.
- 또한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게 되고, 폭력에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3) 학교폭력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입장을 학생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친구는 우리가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이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며, 약점을 핑





계로 놀리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학교폭력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간에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여기면서 행동을 반복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은 큰 상처를 받고 가해학생들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선생님은 학교폭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학생 스스로 폭력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위험행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 이 세상에 맞아도 되고 피해를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혀서도 안 된다. 가해학생 행동을 선도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위험행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 폭력피해 위험행동이란?

남의 험담이나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예쁜 척, 잘난 척 하거나 수업시간에 튀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학생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행동하는 경우

#### 5) 선생님은 어떤 문제든 학생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피해 관련하여 용기 있게 상담하도록 지도한다.

- 만약 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의 위험에 처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가슴앓이를 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 등에게 의논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선생님은 언제든지 학생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한다.

-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학생도 반드시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 등에게 말씀드리도록 지도한다. 선생님은 말한 학생에게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말과 함께,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며 당연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 선생님이 유의할 사항



- 선생님 자신의 과거 학창생활을 기준으로 요즘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것은 금물! 과거 친구들 간의 주먹다툼이나 따돌림과 요즘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학교폭력의 양상은 다르므로, 과거의 기준을 버리고 현재, 그리고 학생 중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본다.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학교폭력에 대해 투명하고 중립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 2. 학교폭력 예방 모니터링하기

### 1) 학급 내 학생들 간의 관계나 학급 분위기를 수시로 탐지한다.

수업시간 중 피해나 가해 조짐이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외톨이로 있거나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본다.

### 2) 가끔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3) 학급에서 또래 도우미를 5~6명 정도를 뽑아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



들을 지지해주며, 일정 기간 후 재선출하여 참여하는 학생 수를 늘려가고,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4)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 5) 배움터지킴이 선생님과 교류를 통해 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탐색한다.
- 6) 학급 내 학교폭력의 조짐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상담교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 7) 자신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학생들 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둔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면 반드시 신고하고, 사안 접수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과 유의사항, 초기 대응에 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한다.
- 8) 폭력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 주변 지역의 가로등 설치나 CCTV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아울러 경찰 순찰을 요청한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있고, 사실상 직접적인 조사는 자치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다 할지라도 담임선생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사건 현장에 있는 교사 등 교직원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었다는 연락이 올 경우, 담임선생님은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 또는 파악한다.

-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집단폭력 여부, 가해학생의 구성, 규모, 기간, 피해 정도, 폭력 원인 등을 기록한다.
-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를 찾는다.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정황 파악 후 학교에 신고한다.
- 목격학생이나 기타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진술서를 받아둔다.
- 가해학생이 파악되면 사건 직후 진술서를 쓰게 한다. 만약 집단인 경우, 가해학생들을 격리시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



처리과정	담당자	비고
피해학생 조사	담임교사 (1차 조사)  상담교사 (2차 조사)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을 안심시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함 상담교사의 조사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과정이 될 수 있음. 상담교사는 피해학생의 심리를 안정 시키고 심리적 피해 정도, 과거의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
처리방향 협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이후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전담기구 소속 교사 각각의 역할을 정함
주변학생 조사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설문조사, 면담 등의 방법 활용
객관적 입증 자료수집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증거 자료(증거물, 설문조사, 면담 자료 등)
가해학생 조사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가해사실 인정받기, 보복행위 금지



### 사안 처리 이후, 이렇게 하세요.

-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사과편지 조차 쓰기를 거부하는 가해학생들이 적지 않고, 주위에서 이를 부추기면서 상황을 어렵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가해학생이 한 행동이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고, 피해학생의 입장을 조망해보면서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한다.
-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 가해학생의 보복을 방지한다.
- 학급구성원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게 한다. 동조자, 방관자의 반성을 유도한다.
- 피해학생의 장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한다.

## 1.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알아두어야 할 것, 3가지

### 1) 학교폭력사안이 경미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는 ‘해당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에게 재량권이 있다. 즉, 학교의 장이 자신의 판단여하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의 비인격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과 욕구불만 요인을 찾아내어 조치를 하는 것이 차후의 더 큰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보호자에 대한 통보가 반드시 필요한가?

- 학교가 학교폭력의 사실을 신고 받고도 해당학생들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해당학생들의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측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원만한 사태해결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가 알게 된 학교폭력의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교사는 보호자들이 흥분하여 감정에 치우친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진정시킨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



### 3)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의 의무와 비밀 준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신고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
수규범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누구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의무 여부	법적 의무	법적 의무
위반 시 처벌여부	처벌규정 없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그리고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03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 1. 피해학생 조사 및 면담

#### 1)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

- 반복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을 상실한 채, 어떠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학생의 입장을 조망해 본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

#### 피해학생들이 자주 갖는 생각과 그 의미

- 내 잘못이 커, 내 탓이야.  
▶ 피해 받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자신에게 돌린다.
- 왜 모두 다 나만 괴롭혀.  
▶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절망적으로 과장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상황을 과장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행동을 합리화한다.
- '어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얘기해보야 소용없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 불가능한 일이야.' '얘기하면 뭘 해, 나만 더 놀림거리가 될 텐데... 나만 이상한 애 취급을 할 텐데...'  
▶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고,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며,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 한다.
- '억울해.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거야. 두고 봐.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가만두지 않겠어, 다 죽여 버리겠어.'  
▶ 때로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당장 폭발할 것 같다.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 '나만 없어져버리면 돼, 부모님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대로 영영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 때로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보복하려 한다.





- 아이의 상태를 살펴서 아이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늠하여 다가가도록 한다.

## 2) 피해학생의 반응에 따른 상담

선생님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만, 학생들의 무반응에 선생님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게다가 피해학생의 거슬리는 행동에 선생님의 집중력은 흐트러지기도 한다. 선생님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개입해야 할 타이밍을 놓칠 경우 문제가 더 악화되며, 학생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너무 사정이 열악한 피해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감상적인 개입은 선생님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결국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러 피해학생을 불신과 절망감에 빠뜨리게 할 위험도 있다.

피해학생의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을 간략히 살펴보자.

### ① 울면서 과격하게 행동하는 경우



**선생님** : 쉬는 시간에 OO 교과서 가져간 사람은 어서 빨리 돌려줘라.

**학생들** : (침묵~~~~)

**선생님** : 누가 그랬니? 어서 빨리 순순히 돌려줘라. 더 이상 말하기 전에 돌려줘라.

**피해학생** : (계속 울고 있는데 갈수록 소리가 점점 커진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기도 한다)

**선생님** : 자기 물건은 스스로 보관을 잘해야지, 아무리 속상해도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것은 아니지. 그것도 선생님 앞에서...

**피해학생** : (목놓아 운다)

▶ 지금 이 사례의 경우, 피해학생은 선생님이 겉으로만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하거나 돕기는커녕 자신을 나무라기만 한다고 여기게 되어 더욱 더 서러워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된다.

-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어야 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꾸짖음은 본래 피해학생을 괴롭힌 학생들의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의도와는 거리가 생기게 된다.
- 다른 방관학생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신의 몫보다 피해학생의 허물이나 과오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양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피해학생의 행동에 대해 꾸짖기보다는 왜 이렇게 피해학생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 다수의 학생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00가 얼마나 힘들면, 오죽 했으면 이렇게 까지 행동하겠느냐?”.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 00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 “00야,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충분히 네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차분히 기다려보자꾸나.”



## ②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

(침묵하는 피해학생에게--)

선생님 : 소희야,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소 희 : .....

선생님 : 선생님 못믿니?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어서 말해보렴.

소 희 : .....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선생님 : 도대체 너 언제까지 이라고 있을래? 무슨 말이라도 해야 널 도와줄 수 있잖아?

소 희 : .....

선생님 :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니? 선생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 ▶ 아이가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침묵하는 학생을 보면 안타깝고 때로는 갑갑하고 바보스럽다고 여기지만, 이들은 불안 혹은 반항심 때문에 침묵하고, 심한 위축감과 불신감 때문에 어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침묵도 학생의 표현 가운데 하나이므로 침묵도 존중되어야 한다.
- ▶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만한 에너지도 용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무조건 극복해야 한다며 피해학생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 매사에 급하게 서두르면 실패하기 쉽다. 선생님의 기대나 진도대로 따라오지 않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한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침묵하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선생님은 네가 여기까지 버티어 낸 것에 대해 진실로 대견하게 생각해.”
-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 “아직 네가 말을 할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보구나.”
- “선생님은 너를 돕고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데, 선뜻 말하기가 힘든가보구나.”
-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혹은 뭐가 제일 불안한지 궁금하네.”
- “네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면 어떨까?”
- “선생님은 네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 “그래, 오늘은 영 이야기하기가 불편한가 보구나.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 ③ 두려움, 분노, 억울함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성 수** :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은 '나'인데...

**선생님** : 그럴 리 없을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애들도 진실을 알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네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성 수** : 선생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 애들이 저를 얼마나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매일 봐야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똑바로 쳐다보면 아마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도움을 청하란 말인가요? 애들한테 더 당하겠죠.

**선생님** : 너라면 하겠지, 넌 이겨낼 수 있을 거니까, 잘 할 수 있어, 내 말만 믿어봐.

- ▶ 성수는 놀림거리가 될까 걱정이고 또래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갑갑한 상태이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잘 할 수 있어, 학교폭력 별 것 아니야, 시간이 다 해결해줄 거야'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위로가 되기보다 더 큰 절망감과 선생님에 대한 불신감만을 주게 된다.
- ▶ 피해학생은 두려움과 분노, 억울함과 무기력으로 인해 스스로 극복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이로 인해 더욱 괴로울 수 있다. 오히려 다른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하면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 선생님은 피해학생의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과장되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이 굳어지는 것 같아 그 점을 깨닫게 해주려 했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심리적인 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학생과 선생님이 나눌 수 있는 대화로 이러한 것은 어떨까요?

- 학교 다닐 것이 걱정이라는 성수에게
  - ▶ “아이들이 너를 오해하고 너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 매우 속상하고 갑갑했겠구나.”
-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우
  - ▶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리고 너도 나중에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당연히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땐 너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만큼 베풀 수 있을 거야.”
- 언제 어디서 다시 피해를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피해학생에게
  - ▶ “선생님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루 빨리 사태를 수습하여 네가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게,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네 곁에서 힘이 되어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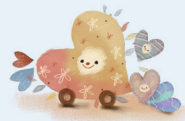
## 2. 가해학생 조사 및 면담

### 1) 가해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중에는 무언가 불만에 가득 찬 표정과 주위를 지배하려는 힘을 갈구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학생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방관하는 가해학생도 있고 과거에 피해를 당했던 학생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폭력적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나 어려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또래 친구들이 폭력적이든가 유독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있다든가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해학생은 대체로 폭력에 대해 친숙한 태도를 보이고 폭력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하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무시당한 만큼 꼭 되갚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들 때 참지 못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경우, 폭력행동을 중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



## 2) 가해학생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대응

가해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 하지만, 무책임한 태도, 죄의식 결여, 공격적인 언사 등에 불쾌해지기가 다반사이다. 학생들의 분노 표출과 공격적언사가 선생님에 대한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이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하고자 노력해보지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학생을 다루기는 더더욱 어렵다. 가해학생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간략히 알아보자.

### ① 가해학생이 모순된 말만 계속하는 경우



**학 생 :** 저는 처음부터 소심이란 애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 애를 힘들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전 억울해요. 소심이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 같이 굴지만, 그 애도 못되었고, 이번 일에 책임져야 돼요. 전 그냥 강철이가 할 얘기 있다고 해서 학교에 남았을 뿐인데... 선생님은요~~

**선생님 :** 그만 좀 해라. 더 이상은 못 듣겠다.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래? 너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었으면 좀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니? 네가 강철이한테 소심이와 약속 있다고 집에 가지 말고 남으라고 했다면 서?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남자답게 책임질 것은 저야 하는 것 아니냐?

- ▶ 가해학생이 모순된 말을 할지라도 우선은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듣도록 한다.
- ▶ 가해학생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있던 다른 친구와 피해학생이 궁지에 몰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한 경우에 드러난다. 자





신이 공격받는다고 인식할 때 자신을 방어하면서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을 탓하거나 끌어들이다.

- ▶ 학생의 거짓말, 학생의 뼈막한 사고를 바로 잡으려는 선생님의 태도는 당연하고 필요하지만, 한 템포씩 늦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 ▶ 공감을 하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학생이 한 말을 선생님이 정리하는 선에서 대화를 계속하여, 학생 스스로 할 이야기를 정리하게 하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이렇게 대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그러니까 네 말은 소심이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이지. 강철이도 한 몫 하고.”
- “그래, 너는 소심이와 강철이 사이에서 억울한 게 많은가 보구나?”

## ② 가해학생은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몰아가려는 경우

**선생님** : 자초지종을 어서 말해 봐.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구.

**학 생** : 다 안다면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생각해요. 참~~

**선생님** : 네 행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말하는 태도가 그 모양이나?

- ▶ 선생님은 가해학생을 처음부터 압도 또는 주도해나가기 위해 말한 것이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눅 들기보다는 선생님을 공격하거나 선생님의 약점을 잡을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학생들과의 힘겨루기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고 의미 없는 전쟁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감정적으로 점점 더 격양되어가고 본질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 ▶ 가해학생을 대할 때, 일방적으로 몰아간다거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선생님의 행동은 가해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나 근본적 차단은 어렵고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이끌지도 못하며 오히려 반항 행동이나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
  - 가해학생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은폐하려 하므로, 일단 학생 스스로 자신의 경계를 허물 수 있도록, 선생님의 여유로움이 요구된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입장에서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 보렴.” 등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권한다.
  - 동시에 선생님은 충분히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한다. 학생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때로는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 정리가 맞는 지 가해학생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 ③ 학생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하려 하며, 선생님은 가해행동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지적하는 경우

**선생님** : 너 또 친구 돈을 빼앗았다며? 나쁜 일인 줄 알면서 그 짓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학 생** : 아니에요, 전 빌렸을 뿐이고 곧 돌려준다고 했어요,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만 의심하고 그래요. 그 못된 녀석,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선생님** : 네 행동에 대해 반성은 커녕,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다~~

-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적할 경우, 서로 부정적인 감정이 고조되면서 소통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선생님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말, 비아냥거리는 말로 비춰질 수 있다.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기대감이 없으므로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나아져야겠다는 변화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기 어렵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쩔 건데.’ ‘나 그런 줄 이제 알았나? 흥, 선생님 마음대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함부로 행동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얻을 것도 없고 소통되지 않을 것이다.
  -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의 심리상태에 대해 이해시키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게 한다.
  - 피해학생이 입원을 한 경우, 문병을 가거나 사과편지를 쓰는 등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학생에게 다시는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한다.
  - 피해학생에게 보복, 협박하거나 폭력행동을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됨을 주지시킨다.

#### ④ 가해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경우



**선생님 :**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나약이는 너보다 체구도 작고 어린데, 왜 때렸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학 생 :** 선생님, 전 억울해요. 나약이가 저를 얼마나 많이 놀렸다고요, 전 참구 참다가 나약이가 까불어서 한방 먹인 것뿐이에요. 나약이는 맛을 만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맛을 짓을 한 거고,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고요, 내가 안 했어도 아마 누군가가 나약이를 때렸을 거예요.

-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대화를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사용할 경우 비난하거나 질책할 것이라 생각하여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러한 경우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게 된다.

- 가급적 ‘왜’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구나.’ 정도로 말을 이끌도록 한다.

- ▶ 가해학생들 대부분은 피해학생이 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렸거나 피해학생이 자신을 귀찮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비록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스스로 감정조절하기

분노의 대상에서 화가 난 즉시 고개 돌리기



심호흡을 3~5번 하기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시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기



화가 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기



# 04

##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학부모 상담 이전에, 우선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학부모가 갖는 염려와 두려움, 수치심 등 심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측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특히, 학교 차원에서의 은폐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배려하지 못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학교 측과 부모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 1. 피해학생 학부모 상담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보통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 마련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녀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까 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자책감,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서운함 등으로 감정이 격앙될 수 있다.

- ▶ 학교에서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폭력피해 사실을 알릴 때,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설명에 앞서 피해학생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많이 놀라셨죠?”
  - “전화 받으시고 걱정 많이 하셨지요? 저도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 ▶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
  -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속상한데, 부모님께서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 ▶ 피해학생 부모의 심리상태가 다소 완화되었을 경우, 피해 정황을 매우 정중하게 말씀드린다. 만약 학교에서 알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사과와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지지를 하고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 “피해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나요?”
  - “혹시 주변에 이 상황을 목격한 친구가 있나요?”
- ▶ 사건 축소나 은폐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 ▶ 학교에서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학생의 보호와 안전,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 “실제 어떤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물어올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해결방향을 시사할 수 있으나 설부른 조치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부모가 원하는 것을 묻는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 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적응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바에 대해 알아본다.
  -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요?”(화해, 사과, 전학, 기타 가해학생 처벌 등)
- ▶ 피해학생의 적응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면담을 이끌도록 한다
- ▶ 추후 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화나게 하는 학교 측의 태도

##### 하나!

-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보다 심한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 “제 일이 아니어서……”
  - ▶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느껴진다.
  - ▶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태도로 느껴진다.

##### 둘!

- ○○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고...
-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를 괴롭힌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는 고의적으로 남을 괴롭힐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 피해학생이나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피해학생의 특정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놀리는 등 폭력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OO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하고 잘 지내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도록 돕고 싶는데 이런 행동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 셋!

- “싸우지 않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을 다 싸우면서 크는 거죠.”
-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네들끼리 해결해나가도록 지켜보시죠. 뭐 이런 일로 학교까지 오십니까?”

▶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넷!

- “학교에서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 “이번만 참으시고 앞으로 한 번 더 일어나면 그 때 처리하겠습니다.”

▶ 은폐하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 이 후의 일은 당사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태도로 보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선생님이 무성의하게 대처한다고 판단되면 특히 피해학생 학부모는 가해학생보다 선생님에게 더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처음에는 선생님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눈치를 보다가,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압박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극단의 행동을 취해서라도 선생님이 꼭 처벌받기를 원하게 된다.

## 2. 가해학생 학부모 상담

가해학생 부모는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당황스러워하고 자책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

- ▶ 가해학생 학부모로서 이번 사안으로 받았을 심리적 충격과 수치심 등을 헤아리고 수용한다.

- “갑자기 부모님을 뵙자고 해서 걱정도 되고 많이 놀라셨죠?”
- “학교에서 전화 오면 겁부터 난다고 하시던데 학교에 오시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그런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 ▶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자녀가 낙인찍힐까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선생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 ▶ 학부모의 감정은 일단 수용하되, 자녀의 가해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 ▶ 학교에서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과정에서 △△가 어떤 행동 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 “현재 ○○는 신체적인 피해로는 \_\_\_\_\_하고 심리적으로는 \_\_\_\_\_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 피해학생 보호자의 심정에 대해 알려드리고, 가해 측의 진심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 가해 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학생이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 사안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준다.
  - 앞으로 이 일이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면, ...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 궁극적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말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두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해결과 궁극적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가해학생의 폭력적 행동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폭력적 행동의 치유를 위해 학교와 가정의 협조로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가정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화나게 하는 학교 측의 태도

### 하나!

- “또 싸웠습니다. 맨 날 사고만 치니...”
- “○○이가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 “우리 반에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 둘!

- “도대체 뭐가 문제죠? 집에 문제가 있나요?”
- “가정에서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죄책감이나 수치스러운 느낌은 물론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셋!

-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제가 늘 ○○에게 붙어 있을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따로 있으니까, 생활지도부에 가서서 알아보시죠. 제가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 “학교에서도 할 만큼 다 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담임선생님으로 이런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이후의 일은 당사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다.



### 3. 사례로 본 학부모 상담

#### 1) 가해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



중학생 ○○가 화장실에서 급우 △△을 때려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담임 교사가 ○○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이야기 하자 애들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맞을 짓을 했으니 때리지 않았겠냐며, 피해학생 가정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자녀 ○○이는 집에서는 착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말하며 문제를 부인하였습니다.

- ▶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느 부모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녀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 자녀의 잘못이나 문제행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학부모의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 학교에서의 적응도는 장차 사회생활의 성공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서 잘못을 부인하기도 한다.
  -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이끄러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린다.

▶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해 학부모를 비난하는 듯한 어투나 태도를 삼가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

-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원하고 돕고자 하는 협조자로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의논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학부모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여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려는 태도가 전달되어야 한다.

▶ 평소에 학교생활 및 적응도에 대해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긍정적인 측면이나 잘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칭찬이 드물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적을 학부모가 불쾌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 작은 것이라도 성취를 보이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인정하며 학부모에게도 전달함으로써, 선생님의 관심이 긍정적이고 균형잡힌 것임을 알리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 학생의 잘못과 문제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릴 때, 학생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학생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을 믿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문제행동과 잘못을 교정하고자 하는 태도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임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학년 초부터 학생에 대해 관찰 기록한 다양한 자료 등 구체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이 자료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루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적된 것일수록 도움이 된다.





## 2)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해결에 무관심한 학부모

### 사례 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던 중학교 1학년인 ○○은 중학교에 들어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 20여명에게 동시에 구타를 당하여 잠시 기절까지 하였습니다. 기절한 ○○에게 급우들이 침을 뱉기까지 하였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가해학생들의 자술을 받았지만, ○○의 부모님은 자주 있어온 일이라며 도리어 자녀 때문에 학부모 자신이 힘들다고 푸념을 하셨습니다.

### 사례 ②

중학교 2학년 ○○은 1학년 후배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을 면담해보니 처음이 아니고 다른 피해학생들도 있었습니다. ○○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도 어떻게 못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하겠냐며, 내놓은 자식이니 알아서 하라며 직장생활로 바쁘다며 상담을 회피합니다.

- ▶ 어느 부모나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지만, 학부모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 상황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못 하는 부모가 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시간이 없다며 상담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 이런 비협조적인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오시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상담 요청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선생님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보다 교육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면 학부모상담에 응하게 된다. 학교에 오신 경우, 상담을 요청받고 학부모가 가졌을 생각과 느낌에 대해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에서 전화 오면 겁부터 난다고 하시던데 많이 당황하셨지요?” 등의 말로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 및 상담과 관련하여 가진 생각과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에 오더라도 마지못해 오는 경우여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의 문제행동에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선생님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 이런 학부모야말로 자녀교육에 있어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고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좌절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지나치게 크므로 자녀교육에 무관심해졌거나 자녀의 거둬드는 문제나 지난 노력의 실패로 인하여 지쳐 버린 학부모야말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어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바쁜 가운데 선생님을 만나러 와 준 점이나 학생이 학교에 제 시간에 등교하게 해 준 점 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위로해 준다면 기운이 나서 더 잘해 보려는 생각이 들 것이다.

▶ 자녀 문제행동에 무관심한 부모일수록 삶 속에서 좌절과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관심을 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여 그 고통을 회피하고자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부모에게 알림으로써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점,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부모에게 전달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특성과 관련되어 가정에서 행동은 어떠한지, 학교 밖 상황에서는 어떠한지 등을 질문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확인하게 한다.





▶ 무관심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의 성향이나 행동을 피상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찰된 자녀의 행동과 그때 자녀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은지 질문한다. 또한, 자녀의 강점과 자원은 무엇이며 취약점을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질문하여, 향후 학부모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암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녀에게 무신경하지만,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했던 노력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강점을 확인하고 지지한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었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격려해준다.

■ 김정애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46~51
- 조정실, 차명호(2010). 선생님은 해결사 학부모편. 서울 : 학지사
- 김혜숙, 최동욱(2010). 초등교사를 위한 학부모 상담 길잡이. 서울 : 학지사

# 05

## 학교폭력 유형별 개입

### 1. 학교폭력 유형, 알아보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  
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학교폭력 관련법에서 다루는 것인지 알  
아보자.

1) 친구들끼리 서로 놀리고 한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의  
도적으로 적극 막아서 노는 시간에 끼워주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대꾸하  
지 않는 행동, 싫어하는 별명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행동, 이런 것도 학교  
폭력에 속하나요?

- 집단따돌림, 괴롭힘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2) 폭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나요?

- 주먹이나 발로 얼굴이나 몸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
-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 가까이 접근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면서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 집단폭행을 모의하였거나 폭행에 가담한 경우
- 상습적 구타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과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힌 경우
-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사실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 폭행과 헛갈리기 쉬운 행동으로 상해가 있는데, 이는 팔이나 다리 등이 부러지거나 코뼈의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지는 등 외상이 있는 경우(그 정도와 치료일수를 묻지 않음)나 외상없이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실신, 보행 불능, 수면장애 등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 3) 명예훼손/모욕, 협박이나 금품갈취/공갈에 해당되는 행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 명예훼손/모욕

-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글이나 음란성 메시지, 사진 등을 올리는 경우
- 상대방이 자제를 권함에도 지속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줌
-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함
- 타인이 명의나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

#### • 협박

- 사람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서 공포심을 갖게 함
-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알려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경우  
예)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거나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

- **공갈/ 금품갈취**

- 신변안전을 위협하거나 협박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서, 이로써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금품을 갈취함
- 값을 의사도 없이 타인의 재물을 빌리고 이후 갚지 않음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아 오거나 상납함

#### 4) 성폭력도 학교폭력에서 다루게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 **알아봅시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들 ~~**

- 옷을 벗긴다거나 속옷만 입게 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헛소문을 내는 행동
- 음란한 눈빛을 보내고 성적인 몸짓을 하는 행동
-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접촉을 하는 행동
- 흥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면서 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하는 성행위



5) 그 밖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또 있나요?

- 예,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라요~~**

- 옷빈정거리거나 비방, 폭력성 메시지 등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보내기
- 인터넷 카페나 학교 게시판 등에 헐박성 글을 올리거나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하기
-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을 빼앗은 경우
-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숨기는 행동
- 마치 상대방을 위해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괴롭히는 행동

## 2. 학교폭력 유형별 개입 예시



###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폭력으로 길들일 수 있나요? 겁줄 수 있나요?

P중학교 짱인 강한군과 또래 아이보다 작은 허약군은 같은 반입니다. 평소 강한군은 허약군이 다른 학생들을 모함하는 일이 잦다고 생각해서 남자답지 못하다면서 놀리기도 했고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친구와 놀던 허약군이 실수로 강한군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강한군은 미안하다는 허약군에게 “이게 어디서 누구를 치고 난리야. 안 그래도 너 한번 손 좀 보여려고 했는데 잘됐다. 따라와” 하며 허약군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구타하였습니다.



### 사례 이해

- ▶ 이 사안은 평소 못마땅한 행동을 한 학급 학생에 대한 폭행으로,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이 사안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반 학생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 ▶ 피해학생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은 가해학생의 반응은 도가 지나친 편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이 의도적으로 친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며 위협적인 상황도 아닌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행동을 매우 공격적인 것처럼 왜곡하여 마치 기다렸



다는 듯이 피해학생을 위협하고 구타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이다.

- ▶ 가해학생에게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혹시 가해학생의 경우 충동적인 공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 사례 개입

- 단순폭행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나치거나 담임교사 입장에서 수습하기 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 각자의 입장에서 담임선생님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 부모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는 상태로 격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선생님 입장에서 들을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므로, 부모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해하자.
- 치료비의 경우에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여 치료비 배상 결정을 하도록 권한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도 만만치 않으며, 배상액도 신문지상에서 언급되는 금액과는 거리가 먼 소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의견 조율이 어려우면 학교폭력 SOS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 이러한 사안에 대한 타 시도교육청의 선도조치를 살펴보면, '타인에게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서면사과를 주요조치로 하고, 접촉 및 협박 금지, 교내 봉사를 병과하기도 한다.



## 신체 폭행

### 주먹에는 주먹이 통할까요?

A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사군, 우상군, 박장군 3명과 B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상해군, 구명군 2명이 서로 치고 받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장사군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B 중학교의 고상해군, 구명군과 기분 나쁘게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장사군을 화장실 벽에 몰아 목을 조이고, 가슴을 한대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며칠 후, 밤 11시경에 학교 주변 공터로 A 중학교의 장사군, 우상군, 박장군은 고상해군과 구명군을 불러내어 서로 거친 욕이 오간 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 사례 이해

- ▶ 감정적이고 분노조절을 힘들어하는 학생들 간에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사례이다. 사춘기의 특성상 아직 전두엽이 덜 발달되어 왜곡되게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폭행이 발단된 것으로 보인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남들이 그냥 쳐다본 것도 기분 나쁘게 보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화를 낸다고 인식한다든가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인다. 또한 당하고는 못산다거나 자신들이 당한 것은 반드시 되값아 주고야 마는 생각에 보복성 집단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이 사례는 비록 3명의 학생에 의한 폭행이 우선적으로 발생한 것이긴 하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 3명의 학생이 먼저 폭행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해자인 2명의 학생 또한 폭력으로 되값아주려 시비를 건 점 또한 폭력적이다.





## 사례 개입

- 5명의 학생들 간에 오간 폭행은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명의 학생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모두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폭력 재비행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이나 교육 이수 조치를 취해서 폭력행동은 습관이 되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고, 이들 대상으로 갈등이나 불만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학교마다 내리는 조치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집단폭행의 경우 사회봉사과 특별교육 이수를 병과하는 경우가 있다.
- 폭력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운동부나 댄스 공연 등 동적인 동아리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 법률적으로 이 사례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 공갈, 체포, 감금,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하지만 대상 학생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기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는다(참고자료 참조).



## 금품갈취

### 선배가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생인 금반지양은 1학년 학생들의 돈을 빼앗거나 돈이 없는 경우 훔쳐서라도 돈을 가져오게 하는 무서운 선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학교 후문에서 금반지양은 후배 몇 명을 불러내서 “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주면 바로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줘..” 하며 강제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망을 보던 은반지양은 금반지양과 함께 빼앗은 돈으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먹었습니다.

재미를 느낀 이들은 또다시 일을 벌였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동급생을 불러내어 협박까지 하면서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놓아야지.. 너 학교 다니기 싫어나?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학교 온전하게 다닐 수 없을 거야. 참 네 동생 자전거 멋지던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전거까지 가져갔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피해학생들은 금반지양과 은반지양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 사례 이해

- ▶ 이 사례는 금품갈취의 전형적인 유형이며, 협박을 하면서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형태로 학생들 간에 흔히 발생되고 있다.
- ▶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처음으로 비행할 때에는 경찰에 잡히거나 누군가에게 들켜봐 두렵고 매우 불안하지만, 여러 번 비행을 했는데도 별 탈이 없을 경우, 죄의식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쾌감을 느끼며 비행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절도나 갈취 횟수가 늘어날수록 고가의 물



건이나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힘도 얻어 만족스럽기 때문에, 비행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 사례 개입

- 금품갈취는 엄연한 학교폭력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망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몸으로 때우는 것을 선호한다. 주위의 낙인과 부정적 기대로 더 이상 자신은 나아질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기 보다는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며 수용되고 소통되는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 법률적으로 이 사례의 가해학생은 단순히 욕박지르거나 겁을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형법 제350조).
- 만약에 후배들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하거나 감금을 하면서 돈을 빼앗았다면 강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 범죄(형법 제333조)이다. 위협한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경우에는 특수강도죄가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죄이다.(형법 제334조)
- 하지만 대상 학생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기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는다(참고자료 참조).



## 집단폭력

### 학교가 조폭훈련소는 아니잖아요

중학교 서클 3학년 선배들은 같은 서클 후배인 1학년생들이 처음부터 인사도 잘 안하고 선배를 우습게 안다는 이유로 버르던 중 복도에서 1학년 후배 맹양이 3학년 선배 최상양에 인사도 안하고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과 후 1학년 총 5명을 소집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공원에서 배를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가하여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 중 맹양은 고막이 터졌습니다. 고막이 터진지 모르고, 3학년 선배들은 1학년 후배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과 앞으로는 깃듯하게 선배를 모실 것을 다짐 받고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피멍이 든 것을 본 1학년 맹양의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 사례 이해

- 서클 내 폭력은 대체로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게 하는 경우, 후배의 기강을 잡기 위해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안은 서클 선배가 같은 서클 후배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폭행을 한 사례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 서클의 위계상 피해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맞게 되고, 피해학생들이 상급생이 되어 또다시 폭력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으며, 학교 내 서클은 학교 간 서클과 연계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사례 개입

- 이 사안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서클 후배가 신고한 사안이기에 특히나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자신이 이전에 가담한 폭력사안이 있을 경우, 노출되지 않을까 매우 불안한 상태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안의 피해학생도 비슷한 상태이기는 하나, 같은 서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밀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
- 가해학생들의 경우, 서로간의 결속력과 위계가 있어서 함께 교육에 참여시키는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긴급적 서클 학생들을 격리시키고 폭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분리 지도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에 속한 중학생의 경우, 비행화 경향이 완전히 고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런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도움과 연계방안을 수립, 활용하는 것도 좋다.
- 한편, 법률적인 처분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고 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가능하다.
-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대체로 민사소송 이전에 자치위원회의 중재로 보상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학생들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이 한 행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부모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할 경우 문제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송에 따르는 경제적인 비용과 피해학생이 경험할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할 때, 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리적 괴롭힘

### 누가 내 맘을 이해할까?

허양은 다른 구에서 살다가 전학 온 학생입니다. 공부도 잘 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지만, 학급 내에서 친구도 별로 없고 늘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급의 몇몇 학생들은 허양이 고고한 척한다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고는 툭툭 건드리곤 했습니다. 허양의 가방에 낙서도 하고 지갑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머리를 만지고 볼펜으로 쿡쿡 찌르기도 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귀찮게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는 친절할 척 하다가 학생들이만 있으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폭력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심해지면서 허양은 늦게 등교를 하게 되고, 학교에 나와서도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양호실에 가 있는 경우가 흔하며, 학교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급의 다른 학생들은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허양을 기피하고 무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꼬박꼬박 잘 나오던 허양은 이틀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사례 이해

- ❶ 이 사례는 신체적 폭행이 수반되지 않는 심리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학생이나 부모, 교사 등이 학교폭력으로 생각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다.
- ❷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학생이 보호받기 어렵고, 주위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 더욱 외롭고 절망하며,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된다. 게다가 장기간 심리적인 괴롭힘에 노출된 경우, 언제 어떻게 자신이 피



해를 당하고 시달리게 될지 몰라 늘 불안해한다. 방관학생들에 대해서도 분노가 크고, 그들도 똑같은 가해자라고 인식하기 쉽다.

- 가해학생의 행동 역시 악의적이다. 피해학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정도라면 단지 훈화나 사회봉사로 이들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 사례 개입

- 심리적인 괴롭힘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 이 사안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피해학생을 위한 충고나 위로는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는 말과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이해의 말을 전달한다. 피해학생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버티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개입,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스스로 상담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위축,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피해학생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지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는 방관학생들을 포함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안처리 관련하여 가해학생과 학부모 측이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법당국에 호소하여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집요한 심리적인 괴롭힘은 피해학생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이것만으로 가해학생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다. 법은 공동사회가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등 방법, 내용,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이버폭력

### 보이지 않지만 너무 아파요

중학교 3학년 대범군은 리더십도 있고, 친구도 많은 학생인데, 지나치게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조심성 없는 행동을 했고 친구들에게 조금씩 미움을 샀습니다. 언제부턴가 대범군이 메신저에 접속하자 친구들은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너를 싫어한다”는 쪽지를 욕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러한 쪽지가 반복되자 대범군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행동도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더러운 자식” 등 폭언을 수시로 했으며, 수업이 끝난 뒤에는 “엄마한테 말하면 놔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범군이 메신저에 접속하면 친구들은 “니가 감히 어디서 접속을 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한 학생이 대범군을 놀리는 글을 올리자 “재수 없다”며 맞장구치는 댓글이 이어졌고, 자료실에는 여장을 한 모습과 혐오스럽게 변형시킨 사진들이 올려졌고 비슷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는 글까지 올려졌습니다.



### 사례 이해

- ① 표현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들 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다. 분명한 것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라는 점이다.
- ②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는 행동은 다양한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이버모욕** :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함
  - **사이버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 **사이버성희롱** :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



## 사례 개입

- 흔히들 이것은 범죄도, 학교폭력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례 역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 피해학생은 오프라인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만큼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사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이고 일순간에 확산 되므로 사태 수습이 어렵고, 이로 인한 수치심과 분노가 매우 크며, 대인관계 기피 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이 미약하고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다. 피해학생의 입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며, 재비행예방을 위해 인터넷상의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는 특정 청소년수련관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반인권적 행동으로,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사이버폭력에 관한 처벌 수위는 사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사이버공간에 욕설, 협박, 비난의 글을 올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것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실제의 예로, 피해자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 각각 2년에서 6개월간의 보호관찰과 40~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경우가 있었다.



제 말 좀 들어 보라고 부탁했더니,  
당신은 충고부터 합니다.  
제 부탁은 들어 주지 않는군요.

제 말 좀 들어 보라고 부탁했더니,  
당신은 이유부터 설명합니다.  
제 느낌은 그게 아닌  
제 감정은 생각도 안 해 주시는군요.

제 말 좀 들어 보라고 부탁했더니,  
당신이 나서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군요.  
저를 망치시는군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들어 보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_손코비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에서



## 【 참고자료 】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이해

### 1 소년보호사건이란

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 폭력, 교사에 대한 폭언 등 일부 문제행동은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법처리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다. 단, 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성인범보다 개선의 가능성이 크므로 처벌적 측면보다는 보호적 측면을 중시하여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에 대한 일종의 특별조치인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한다.

#### 1. 보호처분의 대상(소년법 제4조)

- 가. 범죄소년 :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
- 나.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
- 다. 우범소년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
  -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2. 보호처분 대상에 따른 사법처리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경중 등을 감안, 성인범죄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형사처분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용될 수도 있다.

반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고, 우범소년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분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만13세의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을 때리고 돈을 뺏으면서 자신은 미성년자라 재판도 안 받고 소년원에도 안 간다고 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의 경중, 가해학생의 성향,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 1. 수사기관에서의 처리절차

사안이 가벼워 훈방 등으로 선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은 범죄소년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검찰단계에서는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법원소년부에 송치 또는 형사법원에 기소를 한다.



경찰은 범죄소년만을 검찰로 송치하고,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법원소년부로 바로 송치하게 됩니다.

### 2. 법원소년부에서의 처리절차

법원소년부에서는 접수된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수용시켜 조사·진단·교육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을 수용하면서 소년부판사가 심리(재판) 시 참고하는 자료를 준비하게 되며 이를 '분류심사'라고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소년 외에 비행이 심화되지 않았거나 비행이 중하지 않은 소년은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소년 중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3~5일간 출석하여 비행예방교육을 받고 비행원인과 자질 등을 알아보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상담조사'라고 하며 상담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심리 시 참고 자료로 제출되게 된다.

경찰, 검찰,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의 조사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소년부 판사는 크게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할 수도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우범소년 · 촉법소년 · 범죄소년을 수용 · 보호하면서 과학적인 조사 · 진단을 실시하고 성행개선과 교정을 위한 방법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위탁된 소년은 보통 2주~1개월 간 수용되어 조사와 교육을 받은 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호처분이란?

법원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교화와 개선, 보호를 위해 환경을 조정하거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교육적 · 사회복지적 처분을 말합니다. 형벌(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처분은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이나 군 입대 등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학생이 상담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상담조사 등의 교육을 받거나 재판 전 임시조치로 수용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단,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출석확인서 등의 공문을 학교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여 학교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Q

학생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법원소년부에서는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보호자와 소년에게 소환장을 우편 송부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에는 심리기일과 재판을 받게 되는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환장을 확인하시고 해당 법원에 전화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3. 보호처분의 종류

종류	내용	기간	비고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민간시설에의 위탁)	6개월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10세 이상
8호	1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2호, 3호, 4호, 5호는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집행하게 되고 7호, 8호, 9호, 10호는 소년원에서 집행한다. 1호는 물론 2호부터 5호까지는 가정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호처분 중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는 병합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처분 이외에 필요한 처분을 보호처분과 함께 ‘부가처분’하기도 한다. 부가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명령,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1년 이내의 외출제한명령 등이 있으며 보호관찰처분에 부가적으로 명령한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모든 처분에 보호자교육을 부가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 소년원이란?

법원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 보호관찰소란?

소년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보호 등을 통해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보호관찰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 소년교도소란?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여 교정처우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Q

학생이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한 달에 한번 보호관찰소에 면담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 가는 봉사활동에 가야한다며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호관찰처분에 봉사활동 가는 것도 포함되나요?

A

단기보호관찰(4호)이나 장기보호관찰(5호)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3호)을 병합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병합해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불성실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이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10호 처분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호 처분부터 5호 처분까지는 처분 후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호자는 소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며, 소년은 각 처분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불성실한 태도로 수강명령, 보호관찰, 대안교육을 받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한다며 수업을 빠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면담 횟수와 주기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재학생인 경우 가급적 수업을 빠지지 않도록 수업이 끝난 이후 오후 5~6시 정도에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석시간은 학생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등으로 장기간 수업을 빠져야 하는 특별한 경우는 출석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통고제도란

보호자·학교장·사회복지시설의 장·보호관찰소장이 촉법소년·우범소년·범죄소년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소년부에 통고하여 사법처리절차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를 '통고제도'라 한다.

통고제도는 소년과 가까이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나 학교 등에 법원소년부로 사건을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가 발생한 조기에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소년부에 직접 통고함으로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수사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교권보호를 위해 가벼운 사안도 통고제를 적용하게 되면 보호자와 학생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특별교육 등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이 법원을 경유하게 되므로 사건처리 상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부적응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특별교육 미수료자 등에 대해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1. 통고제도의 방법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면 된다. 통고 시 소년과 보호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이름, 통고하게 된 사유, 소년의 처우에 관한 정보 등을 밝혀야 한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소년부 판사에게 제출되며 판사가 사건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2. 통고된 사건의 처리절차

##### 사건수리

학교장 등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소년부 판사가 통고서 등을 검토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합니다.

### 조사

생활환경, 비행내용 등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조사는 전문조사관, 정신과의사,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심리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리개시 결정을 하고 보호자와 소년에게 심리에 출석하도록 통지합니다.

### 심리

조사자료를 기초로 비행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소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비공개로 심리(재판)를 받게 됩니다.

### 보호처분 결정

통고된 소년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때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 사례1

- 사건내용 : 친구가 다른 학생과 싸우는 것을 보고 같이 싸우게 되었고 선생님들이 싸움을 말린 후 교무실로 부르자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였음. 계속 난동을 피우자 교장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하기 위해 교장실로 데려갔으나 의자 등 집기를 던지고 교장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고 먹살을 잡기도 하였음
- 처리과정 : 학교장 통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호처분

#### 나. 사례2

- 사건내용 :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다가 선생님이 깨우자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고 교실을 뛰쳐나가버림
- 처리과정 : 학교장 통고 → '명예훼손'으로 보호처분



## 참고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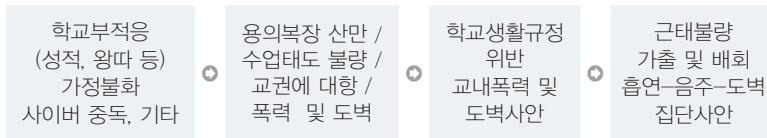
# 학교폭력 등 사안 처리 및 변경사항 안내

## 1 학생 사안처리의 일반적 절차

### 1. 최근 학생사안 특징

- 집단범죄 증가
- 흉포화, 저연령화
- 청소년 성 탈선 관련 사안 급증 : 청소년 성매매의 사회문제화
- 사이버 관련 사안 급증 : PC 중독, 자살사이트, 반사회적 사이트 운영 및 접속

### 2. 학생사안의 일반적인 진행단계



### 3. 학생사안 처리를 위한 기반 조성

- 생활지도 관련 규정 정비
  - 규정과 법령에 따른 사안 처리로 일관성과 공정성 유지
  - 규정 개정 절차의 명문화로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비교

구분	성격	구성	기능
선도(징계)위원회	자치지구	교원 등	학생비행 사안 처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정기구	교원·학부모 외부인사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사안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 11조에 근거)

#### 4. 학생사안 처리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법령지침과 학교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선도규정, 폭력자치위원회 규정
- 정해진 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
- 대내외 창구를 일원화할 것-사안 발생시
- 조기에 개입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
-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 사안처리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
- 보호자에게 사안내용 및 처리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것
- 전체 교직원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
- 모든 일에 우선하여 사안처리에 집중할 것
- 사안처리일지를 상세하게 작성·보관할 것
-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학교폭력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 부여)
-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학교폭력은 병과 가능함)



## 2 학교에서의 사안처리(예시)

### 1. 학교폭력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가)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나) 폭력 사안 처리하기

사안 인지 · 접수	신속 보고 피해자 보호	조사 및 사실 관계 확인 — 전담기구 교육청보고	피해학생상담 가해학생조치 주변학생진술  보호자면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심의결 과 통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교육조치 ● 해결확인 및 추수지도
신고자 책임 교사	담 임 책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전담기구		학교장 보호자	교사

※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17조 제5항)

#### 1) 담임교사의 역할

- 초기단계에서 가·피해자의 사실관계의 확인에 주력
- 생활지도부장 및 생활지도 경력교사와 상의
- 감정 개입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지나친 훈계 지양

#### 2) 학교 내 상해 발생 시 즉각 병원 이송

####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6가지, 수개의 조치 병과 가능)

- |              |         |               |
|--------------|---------|---------------|
| ① 심리 상담 및 조언 | ② 일시 보호 |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 ④ 학급 교체      | ⑤ 전학 권고 | ⑥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가지, 수개의 조치 병과 가능)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헐박 및 보복의 금지
- ③ 학급 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초, 중, 특수)은 퇴학조치 불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출석 일수에 산입 가능

※ 1, 2, 5호는 학교장이 긴급 조치가 가능 (즉시 보고 추진)





### 3 학생생활지도 관련 Q & A



**Q**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지만 사안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조치를 위해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④항**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Q**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심이가 가능한지 여부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재심이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심규정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퇴학조치 된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때 공개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는 2011.5.19. 개정되어, 2011.11.20. 시행되며, 개정내용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회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TIP!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회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1.11.20]



Q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A

2009년 8월 9일자로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 받은 기관은 가·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가· 피해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 규정은 없지만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Q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제5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6호 사회봉사', '제7호 특별교육이수' 처분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호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한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⑦ 가해학생이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선도위원회에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도 '무단결석'처리



Q 성폭력 사안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A

2008. 09. 15 자로 전면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사안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Q 성폭력 사안은 왜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A

성폭력이 학교폭력에 포함되지만 특별법인「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법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②항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지난 ○○년 ○○일 같은 반 친구 ○○○가 반말했다는 사유로 우리 아이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의를 열어 가해학생에게 교내 봉사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그 이후로 가해학생이 무서워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여 3일간 결석을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방안은 없는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결석한 3일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재심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규정이 있는 학교라면 가해학생의 조치 결과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는 여부는 법령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출석일수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가해학생이 무서워 결석했다고 표현 했으므로 직접적인 인과 관계라고 학교장이 인정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지난 〇〇년 〇〇일 우리 아이가 사소한 다툼 중에 같은 반 친구 〇〇〇의 뺨을 때려 고막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학생들 상호 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피해학생이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만 사회봉사 5일의 과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학생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요?

둘째,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지요?

셋째,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잘못은 간과하고 우리 아이의 잘못으로만 몰고 갔는데 학교를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

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은 학교 규정에 의하는 사항으로 조치결과의 '높고 낮음'은 교육청에서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한다든지,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의 처벌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둘째, 가·피해자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피해학생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합의를 했다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안 처리 관련하여 학교 측의 과실 여부 판단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신설 · 개정 사항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42호, 2011. 5.19, 일부개정]

##### ●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

※ 현재 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개정 추진 중)

－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 ● (제15조)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 해야함

##### ● (제21조)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 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함

－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함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dashed yellow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currently blank, with only some very faint, illegible ghosting of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per visible.